

쉬운 수능 수험생 '성적 착시'

“진학지도 힘들어요”

‘쉬운 수능’으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신의 성적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수험생의 ‘성적 착시현상’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2010학년도 수능 자체점 결과, 지난해 수준으로 서울대 정시 합격점인 370점대

이 늘어났다”면서 “학교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교의 진학 실장은 “지난 6, 9월 모의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 시험을 잘 봤다고 여기는 학생도 그만큼 많아졌다”면서 “전국적으로 성적이 올라갔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의 마음이 매우 들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능 성적의 급상승으로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시 외에 수시와 특별 전형 등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같은 조연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험생들의 ‘고득점 착시 현상’은 대학 진학에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게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각 고등학교의 진학실장들은 높아진 수능 성적 때문에 눈속이나 면접 등 수능 이후 입시 준비와 생활지도가 힘들어 졌다고 하소연했다.

박연중 광주진학지도협의회장(송원고)은 “수능이 쉬웠던 해에는 ‘고득점 착시’ 때문에 수험생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아졌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 모 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상위권에서 고려대 수시나 서울대 정시나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

이 많아졌다”면서 “학교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옛 경영진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 안해

교과부 처리 방향 촉각

내일 사분위 특위·26일 전체회의...정상화 절차 밟을 듯

조선대학교 옛 경영진(종전이사)인 박성섭씨와 정애리씨가 정이사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초 조선대 종전이사 측에 16일까지 정이사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박성섭씨 등은 마감일을 하루 넘긴 17일 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성섭이 교과부의 명단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해 10월 이후 이번까지 포함하면 무려 4번이나 된다.

이 때문에 조선대는 박성섭이 명단 제출 마감을 어겨도 수차례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준 것은 박성섭을 비롯한 종전이사들이 학교 경영권을 회복하도록 교과부가 지원해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 9일 박성섭 측에 “만약 11월16일까지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과부와 사분위가 정이사를 심의·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었다.

교과부가 또다시 박성섭 측에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 기회를 줄 경우 종전이사에게 경영권을 주기 위한 편들기라는 비난이 불가피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정이사 선임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성섭 등은 총 5명의 종전이사 중 2명이 지난 5~6월에 정이사를 추천한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소송에 대한 분안 관결이 나올 때까지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교과부에 설명했음에도 교과부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정이사 선임 절차를 종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정상화와 관련, 학교측은 지난해 1월 정상화 방안과 함께 전호 중 총장을 비롯한 10명의 정이사 후보를 제출했고, 종전이사 강모씨와 정모씨는 정이사 후보를 각각 10명씩 추천한 상태다. 또다른 종전이사 김모씨는 정이사 후보 추천 없이 정상화 의견서만을 제출했으며, 박성섭씨와 정애리씨만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19일 사분위 특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산강사업 철회” 퍼포먼스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과 영산강사업 6공구 토지수용 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 50여명이 17일 나주시 노안면 학산교에서 영산강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한 뒤 사업 현황 안내판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nd a table of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영하 5도 (Below 5 degrees Celsius) section reporting on a cold front moving through the region, with a table showing the lowest temperatures for the next few days.

신종플루 확진검사 결과 하루만에 나온다

광주 기기 도입 잇따라 실시해 오진 환자의 경우 빠르면 당일 업무 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늦어도 다음 날에는 결과가 통보된다. 이같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2곳의 지역 내 대학병원들은 모두 확진검사 기기를 운영하고 있어 검사결과가 진료 환자 수에 따라 하루 또는 이를 안에 판정된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5개 보건소도 확진검사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관정받는 만큼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이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개교 이래 첫 여성 총학생회장?

김유리씨 단독 입후보 전남대학교 개교 57년 만에 첫 여성 총학생회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17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치러지는 42대 총학생회장선거에 가정교육과 4학년 김유리(24)씨가 단독 입후보했다. 김씨는 선거 당일 재적학생 50% 이상의 투표와 함께 투표 참여자 50% 이상의 지지만 받으면 당선 확정된다. 문제는 투표 당일 학생들의 참여

영·유아·임신부 신종플루 예방접종 오늘부터 접수

1만5천원 개인 부담 ■영·유아·임신부 신종플루 접종예약 일정

의뢰기관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개시일	접종시작 시기	접종시 준비사항
만 3세 이상~미취학 아동	2009. 11. 18	2009. 12. 7	이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생후 6~36개월 미만 영·유아	2009. 11. 23	2009. 12. 7	이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임신부	2009. 11. 25	2009. 12. 21	산모수첩 지참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포함)	2009. 12. 2	2009. 12. 16	건강보험증 지참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포함)	2009. 12. 16	2010. 1.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안내문 지참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이뤄진다. 1차 예방접종의 경우 만 8세가 넘지 않은 영·유아는 1차 접종 후 3주 간격을 두고 2차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임신부는 25일부터 예약을 받고 다음 달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접종 당일 임신 중인 여성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연필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Political Support Fund' (정치후원금) featuring a young man holding flowers and text promoting the fund for political candidates.